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제도에 관한 의견



고병준 | 본회 이사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를 수면 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67년 지리산을 첫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세월 후에 국립공원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한 지도 또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호, 보존하며 자연 생태계와 역사 문화 경관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의 자연 유산으로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 관리하여 자연 그대로 보전함으로써 미래 세대에서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자연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바탕으로 공단 재정운영상 입장료 징수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간 입장료 수입이 약 250억을 징수하여 예산 편성에 포함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 88년도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시 특히 인근 주민과 주말 산행하는 등산객

또한 각 산악단체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이러한 저항들을 공단에서는 청소비 명분으로 홍보하고 징수를 강행하였다.

특히 해상공원에서는 대표소에 불이 나고 매표소가 바닷물에 빠트려지고 문짝들이 박살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주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공단에서는 청소비 명분으로 입장료 징수를 계속 강행하였다.

이제 이 시점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약 20년 세월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세계 OECD 국가 중 10위권 내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산과 바다에서 먹고 마시고 놀던 시대는 지나가고 국립공원에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공원을 홍보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연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노력에 가일층 분발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 징수에 전력을 투구하는 인력들을 순찰과 공원을 안내하고 홍보요원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 소득을 보더라도 국립공원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며 특히 입장료 징수를 안 한다고 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립공원을 더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으나 기존 인력 운영을 현장 위주로 관리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잠재울 수도 있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입장료 수입과 버금 갈 수 있는 수입증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때라고 생각한다.

천년 만년 국립공원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내려온 우리의 자연 문화 유산을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에서는 심층적으로 분석 또 분석하여 국립공원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못 자연 생태계 생명들에게 영원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은 꼭 마련 되어져야 한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명분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각종



예를 들면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 입구 또는 등산로 이정표에 자연보호와 관련 있고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자연보호 캠페인 광고를 함으로서 일부나마 입장료 대체 수입 비용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업을 정부산하 기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단체를 중간 매체로 활용 국립공원 점사용 명분으로 공단에서 징수하면 입장료 일부 금액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이면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지 4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설된지가 20년의 세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방안과 관리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료 징수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뜻에 부합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약 력

한국 자연공원협회, 국제교류협력 담당이사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회장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 회장
 국립공원, 국공회 회장